

#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       |                        |      |     |
|-------|------------------------|------|-----|
| 파견학기  | 2026년 1학기              | 파견국가 | 독일  |
| 파견대학  | RWTH Aachen University |      |     |
| 학 번   | 2020-16924             | 이 름  | 우승백 |
| 소 속   |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      |     |
| 제 출 일 | 2026년 8월 19일           |      |     |
| 작 성 자 | 우승백                    |      |     |

## I. 교환 파견 동기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막연하게 해외에서 지내보며 새로운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학업을 이어오다 보니 제 다짐은 점차 뒷전으로 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인턴과 학기를 반복하며 지쳐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졸업을 남겨둔 시점에서 학부시절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와 학문적 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한국을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아헨공대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유럽은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색다른 문화를 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고, 그중에서도 공학이 유독 발달하고 생활비도 비교적 안정적인 독일이 제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였습니다. 특히 아헨공대는 공학 분야에서 명성이 워낙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아기자기한 대학 중심지로 형성되어 있어 학업과 휴식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대도시의 화려함보다는 호수와 공원 같은 자연에 둘러싸인 아헨 특유의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아헨은 독일 서쪽 끝, 네덜란드 및 벨기에 국경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대학 도시로 주민의 상당수가 국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위기가 참 활기칩니다. 캠퍼스가 따로 모여있다가보다는 대학 건물들이 시내 곳곳에 퍼져 있는 형태라 수업에 따라 도보 혹은 마을버스로 이동하기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리적 장점이 상당한데, 쾰른이나 뒤셀도르프 같은 독일 대도시는 물론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근교 도시들까지 버스나 기차로 2시간 내외면 쉽게 다녀올 수 있어 주말 당일치기 여행을 즐기기에 정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독일에서 체류하려면 학생비자가 필수적인데,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미리 발급받아 출국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인터뷰 예약(테어민)이 밀려 출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학교 내 행정지원 기관인 SuperC의 도움을 받아 현지 관청 인터뷰를 잡고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

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발급을 받은 케이스였는데, 생겐비자를 통해 90일간은 비자없이 체류 및 여행이 가능하여 나름 여유가 있으나, 테어민을 잡기 까다로웠던 경험이 있어 시간이 있다면 한국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모두 테어민을 잡아야하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매일 새로고침을 누르며 취소여석을 잡아야합니다.) 한가지 팁은 독일은 항상 원칙적으로 행동하는것같아 보이지만, 애걸복걸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비자 수령 테어민이 너무 늦어져서 외국인청에 무작정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며 비자를 무사히 수령하였습니다.

숙소의 경우 학교 협력 기관에서 제공하는 쿼타룸(Quota Room) 기숙사를 배정받았었는데, Enrollment가 나오면 학교측에서 신청메일을 보내줍니다. 저는 한달정도 내에 기숙사 확정문자를 받고 보증금(2달치 월세)와 첫달 월세(332유로)를 입금하여 입주하게되었습니다. 기숙사는 위치와 가격이 모두 제각각이나, 대략 200유로 후반~300유로 초반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인 플랫에 살았는데 플랫메이트들이 친절하여 딱히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등록 비용으로는 한 학기당 약 300유로 수준의 학기 기여금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NRW 주 전체 및 네덜란드 일부 지역 대중교통(ICE등 고속열차 제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메스터 티켓(Semester Ticket)이 포함되어 있어 교외 이동 시 요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재정 증명을 위한 슈페어konto와 건강보험(TK 공보험 등)은 Expatrio 같은 업체를 이용해 한 번에 가입하면 수월하며, 현지 결제용 계좌는 개설이 간편한 N26 인터넷 은행을 활용하고 통신은 Fraenk eSIM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미리 개설후 입독후 바로 이용가능하여 편리하였습니다.

슈페어konto는 6000유로 정도 넣어두었고(1개월당 992유로씩 block account에서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TK 공보험은 매달 145유로 정도, Fraenk는 매달 15유로 정도 내고 데이터 45기가 정도 사용했습니다. 사실 공보험 비용이 매우 비싸게 느껴졌는데, 같은 교환학생중에서는 사보험으로 전환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전환시 비교적 납부액이 저렴했던 것 같으나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거나 확실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보험을 이용하는게 마음편할 것 같습니다.

#### IV. 학업

수강신청은 RWTHOnline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한국 대학처럼 몇 초 만에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개강 전후로 몇 달간 원하는 수업을 매우 자유롭게 신청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강의가 많아 시간표가 일부 겹치더라도 관심 있는 수업을 여러 개 들어본 뒤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수업 신청'과 '시험 신청'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업을 들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로 시험을 등록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이 일정은 꼭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수업 신청을 완료하면 'RWTH Moodle'이라고 SNU ETL과 같은 온라인 학습지원 홈페이지에서 수업자료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 과정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환학생들은 주로 석사 과정에 개설된 영어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석사 수업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니 난이도가 아주 낮지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며 수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들은 과목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 Bots and Vehicles in Agriculture

농기구와 곡물 수확방식에 대해 배우는 석사 수업이었습니다. 영어 강의이고 흥미로운 주제여서 신청했으나, 수업자료 중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영어로 자주 언급되어 제 기준 상당히 지엽적이었고, 기출문제나 시험대비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공부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족보가 많은 수업을 듣는 것이 비교적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규모 수업이었고, 교수님도 친절하게 설명하셔서 수업 자체는 재미있었습니다.

#### Building Performance Simulation

OpenModelica를 이용한 실습과 이론수업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습니다. 건물 환경 분석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발표과제 1번, 기말고사 1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습과 이론강의를 모두 들어야 해서 로드가 꽤 많게 느껴졌으나, 툴 사용법이나 전공지식 향상에 있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 Ju-Jitsu Level 1

RWTH Sport 기관에서 따로 운동수업을 열어주는데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수업료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스포츠 과목이 열려서 평소 도전해보고 싶던 운동을 배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무래도 일반 과목보다 편하게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간에 날씨가 너무 더운 경우에는 종종 휴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V. 생활

독일의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야채, 과일, 유제품 등 식재료가 훨씬 저렴해서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면 생활비를 꽤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외식비는 한 끼에 15유로 이상으로 비싼 편이라 약속이 없으면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가끔 저렴하고 든든하게 외식을 하고 싶을 때는 시내의 케밥(Döner)이나 저렴한 중식당을 찾곤 했습니다. Yan's tasty 라는 중식집인데 현지 유학생들도 자주가는 가성비 맛집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트에서 맥주나 와인이 타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한 편이기에 그냥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맥주병이나 캔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모두 보증금(pfand)이 붙어있는데 다 마신 병을 절대 버리지 말고 집에 차곡 차곡 모아두면 마트에서 한번에 환급 받아서 장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필품은 DM이나 Rossmann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헨 시내나 가까운 뒤셀도르프의

한인/아시안 마트를 이용하면 라면, 각종 양념류 등 한식 재료도 어려움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닭소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한국에서 한식재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큰 문제없었습니다.

독일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값이 비싸거나 간단한 감기약조차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타이레놀이나 개인 상비약은 한국에서 넉넉히 구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의 경우 세메스터 티켓 하나만 있으면 기차(RE,RB)나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근교 여행을 다니기 더없이 좋았습니다. 독일 철도 DB 앱이나 버스 지연·취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Naveo 앱을 활용하면 길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독일 기차가 지연이나 변경이 잦은 편이라 약속이나 환승이 있을 때는 항상 20~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움직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취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해서 지내다보니 사실 저는 그냥 시간에 딱 맞춰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시게 될텐데, 치안이 좋은 나라라도 휴대폰 고리를 꼭 걸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지막달에 여행 중 휴대폰을 도난당해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출국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클라우드에 중요정보를 백업 해두시고 휴대폰/여권/지갑을 철저히 사수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돌아보면 아헨에서의 한 학기는 쉽 없이 달려오던 대학 생활 속에서 저에게 선물 같은 휴식이자 새로운 도약의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타국에서 혼자 행정을 처리하고 생활을 꾸려가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독립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이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할 때 뒤쳐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유럽 곳곳을 누비며 견문을 넓혔던 경험은 결코 후회되지 않으며 오히려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아헨에서 보낸 수많은 순간들과 소중한 인연들은 귀국 후 앞으로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빛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